공부는 정말 많이 할수록 좋을까?

(갈4:1~11)

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공부는 정말 많이 할수록 좋을까?>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도 '공부를 많이 할수록 좋을까요?'라고 물어보면 아마 십중팔구는 '예!'라고 그럴 겁니다.
하도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 들은 말이에요,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니?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공부해서 남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TV광고 중에, 입시 준비하는 학원 같아요,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학원인데, 거기에서 '공부해서 남 주나'라고 칠판에 써놓고, '남 주나'라는 말에서 '남 주자!'로 바꿔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광고를 했어요, 참 기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발함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 동호 목사님이에요.
아마 김 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 학원 원장님이 김 동호 목사님 교회

에 다니시는 분인지, 어디서 들은 것을 사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동호 목사님이 그랬어요.
밴쿠버에 있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사경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나 젊은 집사님들이 탄복한 말씀 중 하나가 '공부해서 남 주나?'라는 말을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말로 바꿔서 남 줄 생각을 하고 공부하자!
그래서 제가, 물론 그것뿐만 아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 대놓고 별명을 하나 지어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복음의 선동가이십니다'라고.
목사님이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선동을 하려면 복음의 내용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호소력이 있고, 또 선동꾼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재주가 있어요.
'공부해서 남 주나?' 맨날 듣던 말 아닙니까?
그걸 한 글자 바꿔서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의 동기를 확실히 부여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하자는 게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라는 것은 남에게 준다 안 준다 왈가왈부하기 전에 도대체 공부 자체가 뭐냐 하는 걸 물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에게 있어서 공부란 뭐냐 라는 겁니다.
공부가 뭐냐 하는 답에 따라서, 잘못하면 공부해서 남을 줘도 몹쓸 짓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부해서 안 주고 나를 위해 써도 인생에 낭패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공부가 뭔지 잘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공부를 해서 얻은 지식대로 사는 것, 이게 복음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아, 황당하지요?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를 통해 배운 지식대로 사는 게 복음을 무효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부라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남을 줄 거냐 말거냐 하는 건 나중 문제에요.
공부 자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공부가 뭐냐 라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은 지식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절대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공부해서 얻은 지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고민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남 주냐 안 주냐는 둘째 문제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복음 때문에 초등학문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데 왜 다시 초등학문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갈라디아교인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까지의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등학문과 율법주의를 한통속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바울의 어떤 천재성이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나타난 글들이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을 볼 때는 구약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규정해버리는 이 한 마디를 통해서 구약 전체의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말한 축복의 내용도 다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성경의 의미가 작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율법주의를 세상의 초등학문과 동일시해버립니다.
여기에도 또한 바울의 천재성이 번뜩이고 있어요.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스토아학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것은 무얼 말하는가 하면 고대 헬라철학에서 우주의 구성요소를 연구합니다, 우주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공기나 물이나 불이나 흙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연금술사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구성요소의 구성 비율을 바꾸면, 납이나 철 같은 비금속을 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공기나 물이나 불이나 흙 같은 요소로 이 우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스토이케이아'입니다.
그러므로 초등학문의 종이 되었다는 뜻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요소들에 마음이 지배되고 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요즘 식으로 말하면, 고대 헬라철학에서 나온 형이상학의 마음이 지배되었다는 얘깁니다.
형이상학이란 뭐냐 하면, 우리 눈에 지금 나무가 보이고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다가 보이

고 구름이 보이고 자동차가 보이죠, 이처럼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이 세상 삼라만상의 존재들의 근거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학문이에요.
여기서 모든 존재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지만 그것을 있게 하는 영원한 근거는 불멸일 것이 아니냐? 이걸 찾는 게 형이상학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당시 학문을 지배하고 있었던 주류의 분위기였는데, 이 형이상학적 관심에서 나온 것이 천체숭배인 거예요.
해와 달, 이런 것들을 숭배하며 이들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일월(日月)의 과정 속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들이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그 당시로 돌아가면 지금의 공부인 학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초보적인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초등학문을 율법과 동일시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4절에서 '때가 차매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얘기에요.
즉,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다시금 3층 구조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속해있는 공중이라는 차원, 그리고 육체가 속한 땅이라는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차원으로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걸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초등학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건만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써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초등학문이라는 게 세상의 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의 종이 된 것이 율법주의와 통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들은 초등학문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와 초등학문의 공통점은 이 땅이라고 하는 차원에 폐쇄되어서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형이상학에서 존재의 근거로서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신은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나게 되는 그 신이 아니에요.

형이상학에서의 신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나무가 왜 나무로서 존재하느냐, 강이 왜 강으로서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신을 얘기하고 영원성을 얘기해도 결국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에 대한 답이에요.
관심이 이 땅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을 얘기해도 진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땅에 갇혀 있는 관심, 그 관심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신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은 이런 존재여야 한다고.
그래서 포이에르바하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신이 진짜 실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투사, 마치 영사기가 화면에 빛을 투사하면서 그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생각이 투사해서 만들어낸 신일 뿐이다, 기독교에서의 신이라는 건 illusion 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의 관념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맞아요.
겨울에 얼음낚시를 합니다, 얼음에 구멍을 뚫고 낚시를 하는데, 아빠가 잠깐 저쪽 가서 소변보고 오는 동안에 그 구멍에 빠져버렸습니다.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 얼음 밑의 물은 흐름이 있으니 아이가 떠내려갑니다.
아빠가 떠내려가는 아이를 쫓아가면서 보는데 그 아이가 숨을 못 쉬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로 그 상태, 지금 그렇게 육체의 차원에 갇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학문은 자연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 즉 이 땅의 차원에 갇혀있는 것과 똑같이 율법주의도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것에 마음의 관심이 갇혀있고 붙어있고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유에 속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차원을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사건을 일으키셔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자들은 이 땅의 차원에 대해 죽음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마음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서, 그걸 유업으로 받은 자라고 말해요, 유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그럴 분이 아니지요, 유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공부해서 그 지식대로 사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사와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던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을 보고 권세에 놀랐는데, 그 권세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나타나는 권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난 권세입니까?
지금 주님이 살고계신 이 현장에서 하늘과 연결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라이브로 받아서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공부한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행동과 말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의견과 당신의 계획과 뜻을 흘려보내고 계시는 동안에 혹시 내가 영어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느끼셔서 나로 하여금 영어공부를 하시게 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영어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다?
아니요, 무조건 영어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을 따라 내 인생을 설계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해서 남 줘도 큰일 날 수 있고 공부해서 남 안 주고 나만 가져도 낭패일 수 있다 이겁니다.

공부보다 먼저인 게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행동과 생각은 공부를 통한 지식에 의해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공부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공부에 대해서 죽고 세상의 원리와 원칙, 지

식과 학문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것이 율법주의와 똑같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걸 마음에 쏙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것을 얻기 위해 움직여 가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 움직여 가려니까 세상에서 그것을 얻는 방법을 초등학문이 가르쳐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왜 태양을 향해 절을 하고 달을 숭배합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이처럼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주의라는 게 이 땅에 마음의 관심이 갇혀있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의 차원을 뚫고 올라가서 하늘과 연결이 됨으로서 이 땅에서 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과 소원과 계획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니까.

학문이라는 게 참 맹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나라에 갔어요, 우주과학의 발전입니다.
달나라에 가서 발견한 게 뭡니까?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달나라에 도착하고 왕복하고 난리인데, 그래서 이 지구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우주과학에 투자된 돈들이 다 공중에 뿌려진 것 말고 지구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달에 가봤더니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의 그냥 흙덩어리이더라!
여러분, 이게 과학의 결과에요.
이 과학이 올바른 걸까요? 이게 맞는 얘기에요?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영화를 만드는 촬영장에 가서 보면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촬영 장면 장면마다 웃겨요.
빌딩 벽을 걸어 다니는 스파이더맨을 촬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평면을 걷고 그 밑에다가 빌딩을 찍은 사진을 횡으로 갖다 붙인 다음 거꾸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면 횡으로 걷고 있는데 위로 걷고 있는 것처럼 되지요.
그리고 요즘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발전해서 해운대 같은 영화, 노도가 밀려들어오는 장면들을 다 컴퓨터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배우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높은 파도가 밀려들어오는 것에 겁에 질린 표정을 혼자서 짓고 있는 겁니다.
그 표정과 컴퓨터로 만든 파도가 밀려오는 장면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실감나게 보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설계도 속에 들어가 보면, 마른 흙을 밀가루반죽 하듯이 덩어리로 뭉쳐놓으신 거예요.
과학이 그걸 찾아낸 겁니다.
마치 컴퓨터 그래픽으로 영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장면 장면을 촬영하고 만들어서 매끈하게 편집한 상태에서 영화 자체를 보는 게 더 맞는 얘깁니까?
과학이 뭐예요?
그냥 달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는 그 말씀이라는 속에 들어가 설계를 보면, 흙덩이를 빚어놓으셨고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에서 우리 눈에 태양이 안 보일 때는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태양빛이 달에 반사되면서 달이 환하게 보여서 아름다운 보석처럼 보이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달을 토끼가 방아 찧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우리가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으로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는 것처럼.
그걸 달나라에 가가지고 흙덩이더라고 밝혀낸 게 그게 맞는 얘깁니까, 우선?
좋다 나쁘다는 둘째 치고.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과 영화배우가 따로따로 연기한 걸 합쳐놓은 것을 굳이 생각하면서 영화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극히 일면이에요.
극히 일면이지만 과학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건 참 웃기다 못해서 아예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공부를 통해 배운 학문적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학? 사회학? 이런 걸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학문을 불러서 때때로 부분 부분으로 탐색해서 이용할 수는 있지만 공부, 해서

남 줍니까?
조심하세요, 공부 남 주면 복음이 망가집니다.
나를 위한 공부 때문에 복음이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부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늘과 연결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소원을 전달해주고 계시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죠.

학문?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학문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근데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공부를 왜 합니까?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많이 알았는데, 그 많이 안 그 대단한 학문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율법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십자가복음이 굉장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시키세요.
많이 시켜서 다 버릴 정도로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은 적게 버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중요한 걸 모르죠.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그 많~이 투자해서 얻은 공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버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버리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등학문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 초등학문의 종이 됨으로써 아들 됨의 신분을 무효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